

문화특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제)가 바캉스철 바닷가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리공단은 적벽강에서 성천해변 취사·야영 및 불법주차,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흡연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피서객들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적벽강~성천해변에 몰리면서 불법취사 및 수영 등 각종 무질서행위가 증가 경관 저해 및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평소 여름철 불법취사 및 수영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적벽강~성천해변은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다.

조경목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은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공익관리에 애로가 많다"며 폐쇄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금연그림 전시회

김제시보건소는 19일부터 28일까지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미취학 아동들이 그린 금연그림 103점을 김제시 보건소 1층 중앙현관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보건소는 금연도시 선포이후 미취학 아동들에게 흡연예방 연구 『토끼와 거북이』 공연을 관람하게 한 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 4개원 원아들의 금연에 대한 내용으로 그린 그림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그림 103점 중 부모님이 피우는 담배가 싫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흡연으로 인하여 얼굴이 흉하게 변하는 모습 등 각종 질환으로 죽어가는 표현 또한 다수 볼 수 있고 미취학 아동들의 마음 속 생각이 절대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는 담배를 피우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김제시가 금연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시기간 동안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주산면 경로당, 군·면정 알리미 게시판 제작 '호응'

부안군 주산면(면장 채종남)이 군·면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관내 35개 경로당에 군·면정 알리미 게시판을 제작·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주산면은 경로당 등의 무질서하게 붙여 있는 각종 홍보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경로당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방문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더욱이 매일 2회 개최된 이장회의할 때 이장에게만 배부하던 면정 회보와 공지사항 등을 경로당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하고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채종남 주산면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현장경험 생활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주민 모두가 함께 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황산면 재능나눔 기부 봉사

전북사회복지협·사회공헌기업 9개 단체와 함께 의료·주거개선 등 활동

이번 봉사활동은 한방진료 침, 뜸,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수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원규)는 20일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고잔마을에서 사회공헌기업(9개 단체, 50여명)과 함께 맞춤형 기업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 봉사단은 우석대학교, 이노병원, 한국철도공사, 주택관리공단, KT&G 상상 발룬티어, 전북누수 119, 대한미용사회 전주덕진지부,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연탄은행 등으로 의료, 주거개선, 이·미용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소규모 집수선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황산면 복지공동체 20여명이 참여하여 이불빨래 수거 및 전달, 이동 차량 배식, 설거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행 봉사자들을 도와주어 차후 소외계층을 위한 자체 봉사활동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회가 되었고 또 복지공동체대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현상이기도 했다.

최원규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황산면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봉사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하영 황산면장은 "활동 전 답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과 병원, 자원봉사자의 윈윈을 자원봉사서비스로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혜택을 본 시간이 되었다"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한방진료 침, 뜸,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수선, 노후전기 수리 및 교체, 수도 누수 점검 및 수리, 컷트, 염색, 세탁차량 지원 등으로 노인들이 많은 농촌마을의 가려운 부분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값진 시간이었다. 특히 이노병원에서는 노령에 눈이 처지고 지푸름으로 눈물이 나와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병원으로 모셔와 상안검 성형술을 해주었으며, 연탄은행은 이동 차량로 삼계탕을, KT&G 상상 발룬티어는 팔방수를 준비하여 봉사자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봉사자들의 나눔에 나눔이 더해져 넉넉하고 풍성한 마을잔치 날이 되었다."

이하영 황산면장은 "활동 전 답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과 병원, 자원봉사자의 윈윈을 자원봉사서비스로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혜택을 본 시간이 되었다"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서, 운전자 대상 사고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륜차, 사업용자동차, 여행사 등 차량 운행증가에 따른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찾아가는 안전교육·홍보활동을 펼치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중 안전모 미착용등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휴가철 기간인 6~8월 달에는 전체교통사망 사고의 30%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륜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99%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낭업소, 커피비스 등 업체를 방문하여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를 착용 후 턱끈 매기, 음주운전을 삼가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안전모 미착용시 단속과 계도 위주로 사고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및 여행사 버스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 출발하기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과속, 신호위반, 졸음이 올때는 잠깐 쉬었다 갈 것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차량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사고취약계층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단속 등을 통해 시민들의 법규준수의를 향상시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여성정책콘서트'를 백구면 로컬랜드에서 개최하였다.

김제시, 여성정책콘서트 성황리 개최

여성친화서포터즈단과 함께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민관협력의 여성친화도시 성공 정착과 제2의 도약기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제시는 20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 50명을 초청 양성평등과 여성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여성정책콘서트를 백구면 로컬랜드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콘서트는 '생활 속 평등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경영 협약'이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 김경미 박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한일장산대 김은수 교수의 여성 행복도시 만들기 명사 초청 강연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사례 및 여성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사태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여성정책 활성화와 여성친화마을을 공동체 조성 방안이라는 테마로 오픈스페이스 방식의 토론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교원동, 올 지평선축제 성공적 개최 위한 홍보 총력

김제시 교원동(동장 김태한)에서는 오는 9월 29일~10월 3일까지 펼쳐지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교원동에서는 온라인 담당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지평선축제 지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으며,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등 도내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지평선축제 포스터 부착, 홍보라플릿 배부 등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태한 교원동장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평선축제를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며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담당제를 실시, 홍보에 온 힘을 다해 총력을 쏟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육에는 정읍시 조사료연결체 협의회장 문신우씨를 비롯하여 정읍시 65개 조사료 연결체 법인대표가 참석했다.

정읍시, 조사료 연결체 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19일 제2청사에서 조사료 연결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교육을 가졌다.

교육에는 정읍시 조사료연결체 협의회장 문신우씨를 비롯하여 정읍시 65개 조사료연결체 법인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산 자급조사료의 생산·공급기반 구축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시는 한·중·한·EU FTA 등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책 일환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사료비 절감을 꾀하고 안

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연 2회의 조사료 연결체 교육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등 7개 사업에 10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축산발전기금) 125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탄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후사료 절감 및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를 꾀하는 물론 축산농가와 경쟁농가의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양한 조사료 생산·확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앞장

교육 강화·범블런스 가동 등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소방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에서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주로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많고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음주상태에서의 폭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대응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주취

자 폭행피해 예방 시 소방범프차와 함께 출동하는 범블런스를 가동하고 폭행피해 발생 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출동대원들에게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한 증거확보와 보고체계 확립을 지시하고, 특사경 담당자에게는 실무교육을 수료하게 할 예정이다.

김일선 정읍소방서장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대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앞으로 폭행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하계연찬회는 색소폰 앙상블 팀의 재능기부 공연을 식전공연으로 개최식, 장기자랑, 풍년 대박 터트리기, 축하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농업인 화합 위한 하계연찬회 열려

부안군농촌지도자연합회·생활개선부안군연합회 함께

(사)부안군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백문욱)와 생활개선부안군연합회(회장 김경례)는 20일 부안 스포츠 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우애·봉사·창조의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하자 는 슬로건 아래 12개 읍면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하계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하계연찬회는 색소폰 앙상블 팀의 재능기부 공연을 식전공연으로 개최식, 장기자랑, 풍년 대박 터트리기, 축하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풍년 대박 터트리기는 울 한해

대풍을 기원하고 6차 산업화를 이끌자는 뜻으로 전 회원이 동참해 두 개의 대박을 터트렸으며 박속에는 경품과 시탕, 금문자들이 쏟아져 흥겨움을 더했다.

농촌지도자 회 백문욱 회장과 생활개선회 김경례 회장은 "지역농업 선도자로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 찬 농업인의 3대 농업철학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농업인 복리증진과 국가식량안보에 기여하려는 과학적인 영농 신기술 도입과 농업 후계세대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